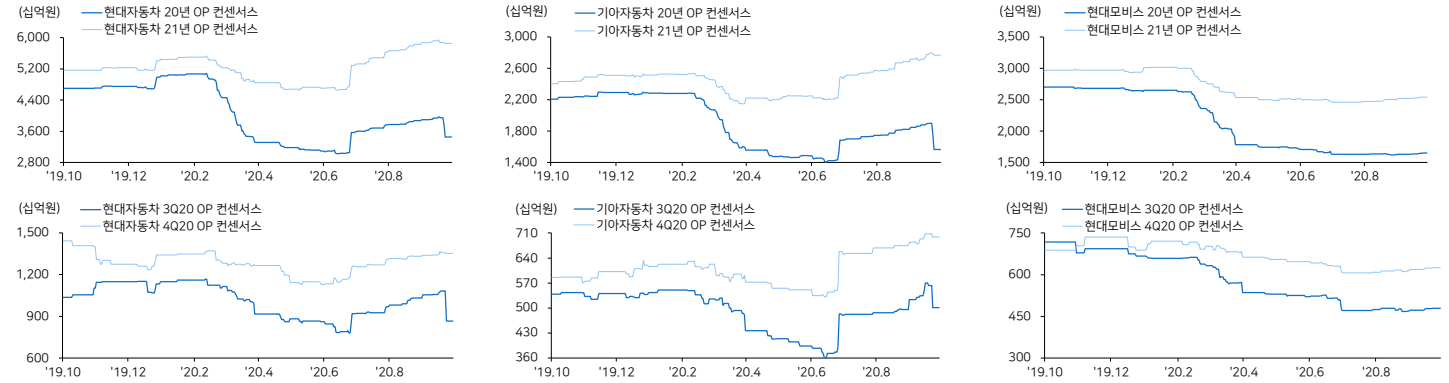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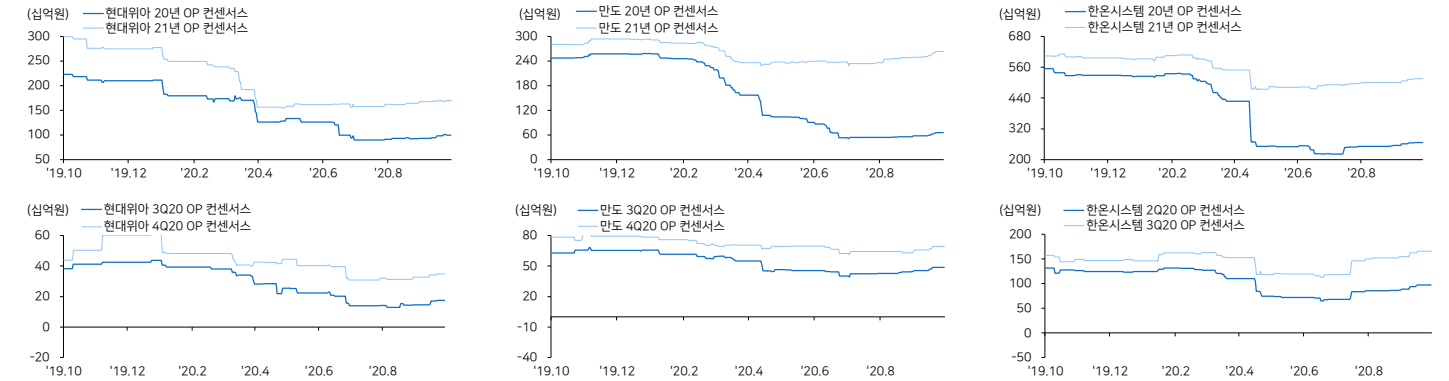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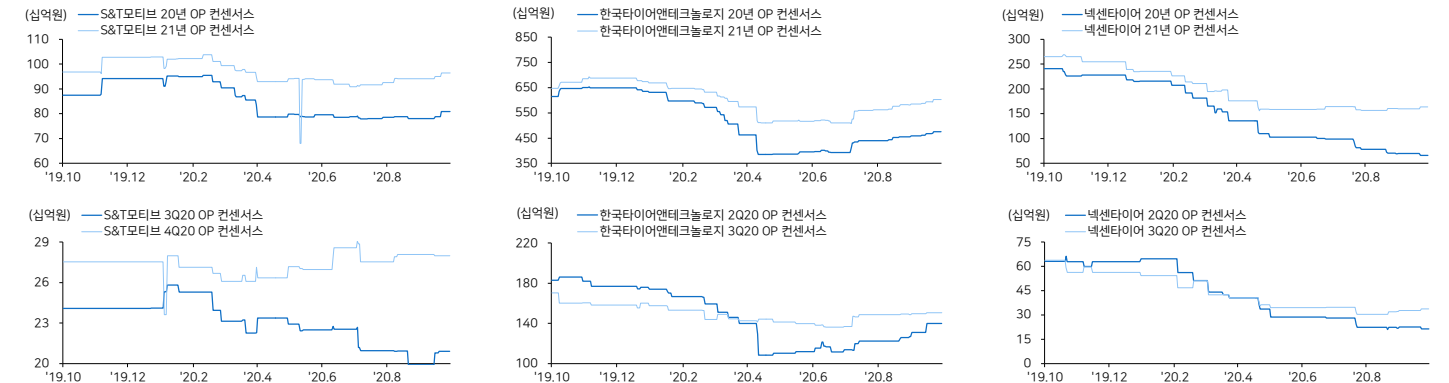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5' 내년 2월 양산 (아시아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 '아이오닉5'가 내년 2월 양산을 시작, 내년 초까지 울산1공장의 일부 라인을 전기차 전용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
<https://bit.ly/35GIU37>

현대차 모셔널, 내년 1월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뉴스웍)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전문업체 엠티브의 합작법인인 '모셔널(Motional)'이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손잡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
<https://bit.ly/2JfvfYi>

현대·기아차 역대급 실적에 모비스·만도도 3분기 실적 기대 '솔솔' (조선비즈)

코로나 사태로 2분기 실적 악화의 충격에 빠졌던 자동차 부품사 현대모비스와 만도의 3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올 전망이다. 2분기 2연진 증빙을 제외한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https://bit.ly/35HpY3g>

9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전년비 45.1% 급증 (중소기업뉴스)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9월에 판매된 중국 전기차(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이 8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로 급증.
<https://bit.ly/3MJIrT>

삼성SDI, 현대차 E-GMP 3차량 용출한다...25년 만에 처음 (세계일보)

국내 재계 1, 2위이자 한국 제조업을 상징하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사업협력력이 초일기에 돌입, 지난 95년 삼성이 삼성차를 설립하고 자동차사업에 진출하면서 소위해진 양사가 25년 만에 부진 간의 구원을 떨어내려는 것으로 관측됨.
<https://bit.ly/30B81gJ>

현대차, 신형 투싼 비주요 소케이스 선보인다 (오토타임즈)

현대차가 신형 투싼의 비주요 소케이스인 'Beyond DRIVE'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비온드 드라이브는 신차 발표회와 SM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전용 콘서트 플랫폼인 비온드 라이브를 결합한 비대면 공연.
<https://bit.ly/2Jcz8gt>

전기차 따라 뜨는 페배터리...현대차·삼성·SK·LG '배터리 빅텐트' 시동 (환경비즈니스)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성큼 다가옴.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시장뿐만 아니라 폐차 이후를 책임지는 페배터리 관련 시장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음.
<https://bit.ly/37NNCh1>

도요타, 미국·중국·유럽서 266만대 리콜...'연료펌프 결함' (뉴스시)

도요타는 28일 연료펌프에 결함을 갖고 있는 266만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 AP 통신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이날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 출하한 266만대 차량의 회수와 무상수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https://bit.ly/3mVbK5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